

75
니너
2014 상반기

4	<u>기획특집 : 상담소 다시 짓기</u>
5	상담소에 새집이 필요한 몇 가지 이유
9	상담소 공간의 기억
11	뽕송뽕송한 반성폭력운동을 기대하며
13	합정동 366-24 빨간 벽돌집 사건사고기
15	추억이 깃든 이 자리에 용기 있는 벽돌 한 장을 올려본다
17	아듀, 상담소!
22	<u>삶의 돋보기</u>
22	세월호 참사와 진상규명, 교통과 치유, 책임과 기억
25	성폭력피해 이후를 헤엄쳐나가기: 〈한공주〉
28	연구소 올림의 미국 출장기
33	<u>만나고 싶었습니다</u>
34	본 상담소 박부진 선임이사
39	디자인이즈 추정희 실장
43	<u>문득 떠오른 질문</u>
4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시에 진정할 수 있나요?
46	<u>열린터 이야기</u>
46	필요한 사람에게 꽃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	상반기 열린터 다이어리
52	<u>본편보다 재밌는 후일담</u>
52	상담원 봄MT 스토리
55	<u>상담소의 밥상</u>
55	말복에도 도시락
58	<u>뭔대! 상담소</u>
60	<u>시끌시끌 상담소</u>
61	<u>훈훈한 기부</u>
62	<u>아낌없이 주는 나무</u>



상담소 다시 짓기

상담소가 정든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짓습니다.

초대소장 최영애님은
상담소 공간을 처음 마련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각별한 기억들을,

전 활동가 김두나님과 오매님은
현 건물에 살던 당시의 웃지못할 에피소드와 함께 애정 어린 응원을,

상담자원활동을 오랫동안 함께하시는 조은희님은
옛 공간을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함께 벽돌을 올려놓는 새 마음을 들려줍니다.

또한 상담소가 새 집을 짓는 각오와 함께,
이슈파티에 참석한 많은 감사한 분의 한 마디도 회원님께 전합니다.

이번 기획특집을 통해 상담소 공간이 우리에게 남긴 기억과 의미를 함께 나누고,
앞으로 상담소 공간이 해야 할 몫을 회원님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상담소에 새집이 필요한 몇 가지 이유

백미순 | 본 상담소 소장

합정동, 연남동, 동교동, 서교동, 통이동, 신촌, 그리고 다시 합정동……. 솔하게 많은 집을 보러 다녔다. 2중 주택지, 근린시설, 전셋집, 월세집, 경매물건, 참으로 종류도 다양했다. 상담소에 새집이 필요하다는 결정 이후, 아침, 점심, 저녁, 짬이 날 때마다 부동산의 부름을 받고 달려갔다.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인 명의로 계약한다고 하니 전세를 줄 수 없다며 거절당하기도 하고, 우리 형편에 꼭 맞는 집을 만나 계약하자고 하니 정작 주인이 한 달 전에 다른 이와 계약을 했다는 어이없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맘에 들어서 서너 차례 둘러보았더니 가격을 올려서 계약하자 하기도 하고, 이사를 위한 길은 참으로 길고 험난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다. 현재의 장소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보자고.

“상담소 입구가 어디예요?”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들이 자주 불멘소리로 전화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제 이름이 있어도 이름을 내걸기 어렵다. 내담자나 방문객이 ‘성폭력’이라는 표지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상담소에 들어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상담소 간판을 버젓이 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담소임을 알아볼 수는 있어야 하기에 상담소는 ‘여성인권과 함께 하는 KSVRC’라는 작은 간판만을 달고 있다. 상담소는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평범한 2층집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담소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운데, 이 작은 간판도 상담소를 찾는 데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 계

다가 2층 상담소로 들어오는 입구조차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은 발견하기 어려운 작은 쪽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리는지라, 상담소에 대한 일정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은 쪽문 앞에서 상담소 입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담소 방문객들은 열려있는 쪽문으로 들어오기보다 간판을 사이에 둔 번듯한 대문의 옆집 벨을 누르고 상담소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 “간판 좀 옮겨 달”라는 옆집의 빈번한 항의가 당연하다. 옆집으로부터 우리집은 상담소가 아니라는 냉담한 반응을 들은 내담자들은 상담소 바로 앞에서 도대체 상담소가 어디냐는 항의 아닌 항의 전화를 하는 것이다. 이제 상담소는 사람들이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되, 찾아오기에 어려움이 없이 접근 가능한 집이 필요하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내담자들이 편안히 걸어들어 올 보통의 문을 가진 집이.

“이쪽이에요?”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 내담자들에게는 치유를 위한 편안한 상담공간이 참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상담소의 지하 상담실로 안내할 때마다 내담자에게 죄송한 맘이 컸다. 최선을 다해 정갈하게 상담실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쾌적하기 힘든 지하실로 내려갈 때 내담자가 이 공간에 불편한 맘을 갖게 될까 염려스럽기도 하다. 게다가 성폭력사건을 심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략을 서로 논의할 때,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시작의 시점에서는 내담자에게 공간이 주는 신뢰성도 상당하다. 상담공간에서 울고 웃으며 사건의 지도를 그려나가면서 대부분 상담소에 대한 신뢰는 쌓이지만, 누추하고 웅색한 상담소의 환경은 처음 상담소를 방문하는 내담자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첫 인상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여성주의상담의 전문성을 담아낼 공간을 갖추는 것도 이제 더는 미루기 어려운 과제이다.

“내가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거야?”

상담소가 부설로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자쉼터인 열림터에 들어오는 생활인들은 가해자로부터의 분리와 치유를 위해 자신이 살아왔던 익숙한 공간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떠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생활인들은 열림터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며 지지와

공감의 분위기 속에서 치유를 경험한다. 그렇지만 물리적 공간의 차원에서 처음 열림터에 들어온 생활인이 ‘여기서 살고 싶다’는 느낌을 갖기는 어렵다. 노후한 기기며 생활용품이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지만 지어진지 30년 넘은 집은 개선의 여지를 제한한다. 심하게 비가 내리면 어딘가의 틈새를 타고 스며드는 빗물로 전기누전이 걱정되기도 하고, 여기저기 막히고 넘치는 배관, 배수문제가 터지기도 한다. 생활인들이 열림터에 있는 기간만큼은 일상의 불편함 없이 쾌적하고 평온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공간, 학업을 계속하는 생활인들이 조용히 공부할 공간, 모두가 둘러 앉아 쾌적하게 식사를 하거나 공동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 편안하게 앉아 TV나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이 바뀌어야 한다.

“오늘 몇 시에 나가세요?”

상담소는 20평 조금 넘는 사무공간에서 매일 스무 명에 가까운 상근 활동가, 자원활동가, 인턴이 복닥거리며 반성폭력운동을 펼쳐왔다. 상근하지 않는 사람들은 앉을 자리가 충분하지 않아 빈자리가 날 때마다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며 일하기도 한다. 그래서 활동가들은 서로 묻는다. 오늘 외근이 있는지, 언제 나가는지. 일 년 내내 접수기를 가동해야 하는 지하 모임터 외에는 회의 공간이 없는지라 각 팀마다 모임터 확보 경쟁이 치열했고, 그나마 내담자가 모임터 옆 상담실에서 상담 중일 땐, 조용히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가들은 주변의 카페를 돌며 회의를 해야 했다. 그래도 우리는 주인이 ‘나가라, 마라’ 하는 전셋집이 아니라 선배들이 한푼 두푼 알뜰하게 절약한 결과 마련한 우리 집이 있음을 자부하며 새 공간을 마련할 엄두는 내지 않았다.

법과 제도를 넘어서

그런데 법과 제도의 변화로 상담소는 새집 마련 구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까지 공간의 문제는 가난한 여성단체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불편쯤으로 여겨왔지만, 법과 제도가 바뀌면서 상담소나 열림터가 충족해야 할 공간에 관한 법적 요건이 달라져 공간의 변화를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작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쉼터는 생활인 1인

당 3.3㎡를 확보해야 하고, 상담소가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인당 1㎡의 면적과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장도 필요하게 되었다.

상담소의 새집마련 프로젝트는 법제도 변화에 의해 견인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수동적 대응의 결과라고만은 할 수 없다. 활동의 변화는 공간의 변화를 요구한다. 상담소가 반성폭력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담론생산을 위해 야심차게 시작한 연구소 설립 역시 공간변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연구소가 반성폭력운동의 현장에서 현실에 발 딛고 연구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상담소와의 공간적 긴밀성도 매우 필요했기에, 상담소 안에 책상이라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했다.

출입문을 찾기도 어려웠던 반성폭력운동에 번듯한 대문달기, 반성폭력운동 과제의 대안을 찾아낼 책상 놓기, 무엇보다 성폭력생존자의 치유적 공간 마련하기, 이 모든 것이 상담소에 새집이 필요한 이유이다. 상담소의 새집 짓기는 반성폭력운동이 현재 놓인 고민과 과제에 도전하기 위한 적극적 기회가 될 것이다.

상담소 공간의 기억

최영애 | 본 상담소 초대 소장,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드디어 상담소가 12년간 어깨 부딪히며 정들었던 ‘합정동 등지’를 허물고 새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번에 만들어질 공간은 한국성폭력상담소 23년 역사에서 여섯 번째 새둥지인 셈이다. 90년 상담소 개소 준비를 하던 청운동 집까지 포함하면, 총 7번째 변신이다. 되돌아보니, 이삿짐보따리를 참 많이 싸고 풀었다. 그리고 상담소 이사는 상담소의 성장과 활동 확장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왔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각 시기마다 술한 에피소드가 넘쳐나고 참으로 많은 여성들의 자매애가 싹뚫으며 반성폭력 역사의 새 장을 하나씩 열어갔다.

91년, 처음 상담소 활동을 시작했던 교대역 사거리에 위치한 13평 오피스텔(실평수 7평)을 계약하면서 초기 멤버들은 감격하고 또 감격했다. 책상 달랑 3개 그리고 벽에 붙여 놓은 세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 3대의 전화기로 시작한 단출한 살림이었지만, 당시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뿌듯! 그 자체였다. 옆 사무실에서 안 쓰는 컴퓨터를 불하받고 복사기, 팩스기를 장만할 때마다 소리 지르며 환호했다. 그러다 쏟아지는 전화와 내담자 방문을 감당할 수 없어 거의 비슷한 위치의 30평 오피스텔인 두 번째 장소로 옮기게 됐는데 넓어진 공간만큼 연대활동의 폭도 커지고 내담자 방문상담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 시기는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과 상담, 교육, 출판활동이 주축을 이룬 이른바 ‘초창기’ 시기다.

두 번째 시기는 93년, 세 번째 이사로 시작된 ‘교육개발원 사거리’ 시기다.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한 ‘상담소’로 등록, 허가받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상담부스와 공간을 확

보해야 했다. 그리고 떡본김에 제사 지낸다고 넓어진 공간을 활용하여 24시간 운영되는 위기센터를 개설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성폭력피해자 쉼터인 ‘열림터’를 개설하여 명실공히 성폭력전문상담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져나가던 시기였다. 또 ‘서울 대조교성희롱사건’으로 촉발된 직장내 성폭력 문제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시키는 동시에 데이트성폭력 방지법 제정을 위한 작업도 펼쳐나간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아마도 상담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활동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다. 대학생 자원활동가들이 상,하반기 치열한 면접과정을 거쳐 60~70명씩 지킴이로 활동하고 사무실 자원활동가인 나눔이들이 20여명, 상담원 30여 명으로 공간이 늘 왠지 낯익은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열림터와 위기센터 운영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고 열림터와 상담소가 근접한 거리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네 번째 동지를 찾게 되고, 이른바 ‘양재동시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95년, ‘양재동 시기’엔 상근자도 십여 명으로 늘고 옆방엔 큰 교육장도 갖추게 되면서 더 다양한 영역의 성폭력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장애인동성폭력 교재편찬을 위해 장애인학교 교사들과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성매매현장의 청소년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것 역시 그러한 노력이었다. 성폭력특별법을 시작으로 청소년 성매매방지법 등의 활동으로 특수영역의 전문성이 크게 확장되어가는 시기였다.

그리고 2001년, 그간의 모든 활동가와 후원자들의 헌신적 수고와 열정의 열매로 합정동에 번듯한 2층 주택을 마련하여 다섯 번째 이사를 단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12년 세월을 이곳 합정동에서 보내고 이제 보다 역동적인 활동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터를 허물고 새 터를 마련하기 위한 일곱 번째 이사짐을 싸게 된 것이다.

단언컨대,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회상할 때 흔히 그 당시 거주했던 집, 친구, 사람들이 한 새끼줄에 묶여있는 굴비 한 두릅처럼 줄줄이 한 뭉텅이로 되살려지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상담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상담소 공간’은 단순한 활동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어린시절 동무들과 해맑게 뛰놀던 고향 같은 곳이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달콤한 꿈을 꾸던 사랑방이다. 상담소에서 만난 우리의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신의 축복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일곱 번째 새로 만드는 공간에서 더 열정적인 반성폭력 역사의 장을 써내려갈 것이라고 믿는다. 파이팅!!!

뽕송뽕송한 반성폭력운동을 기대하며

김두나 | 본 상담소 前 활동가

상담소 공간에 대한 추억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은 모임터였다. 부실한 몇 개의 계단을 내려가 어두컴컴한 입구를 들어서면 나타나는 바로 그 곳, 떠올리기만 해도 주변 공기가 눅눅해지는 느낌이 드는 모임터는 상담소 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모임터는 상담소 활동가들이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행사도 하는 만능공간으로, 상담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모임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아니 미워했다는 쪽에 더 가깝다. 지하라 어둡고 습해서 답답한데다 한두 시간만 머물러도 머리가 아파오고 목도 따가웠다. 모임터에서 회의하기를 싫어했던 나는 종종 근처 카페에서 회의를 하자고 활동가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여름의 모임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벽지에 물이 맺힐 정도로 습해 늘 곰팡이와 함께 살아야 했고, 곰팡이도 출몰하는 괴로운 곳이었다. 장마철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을 정도다.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물이 쏟아져 들어와, 한동안 밤에 비가 많이 내리면 모임터에 물이 들어왔을까봐 걱정하다가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모임터로 달려갔다. 심지어 어느 해에는 지하수까지 터져 며칠동안 모임터에 차오른 물을 퍼내야 했다. 생각해보면 모임터 때문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미운 모임터지만 사실 모임터는 비좁은 상담소에서 우리의 넘쳐나는 상상력



과 에너지를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고, 반성폭력운동에 대한 열정과 애정, 노력을 추동해 온 소중한 곳이다. 돌아보면 나의 상담소 활동도 많은 부분 모임터에서 이루어졌다. 모임터는 매주 화요일 아침, 상담소 활동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상근활동가회의가 열리는 곳이었고,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해냈던 곳이다. 또 시끄러운 2층 사무실에서 글을 쓰기 어려울 때면 내려와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고, 달빛시위 기획단들과 회의를 하며 밤을 새웠던 곳이다. 수많은 성폭력생존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곳, 여성소셜읽기 회원모임의 소중한 회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공간도 모임터다. 밤샘 작업을 하다가 잠시 눈을 붙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활동가들과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았던 곳이다. 모임터는 그 이름답게 수많은 활동가와 회원들, 자원활동가들, 생존자들이 모여 보다 나은 삶과 세상을 만들어온 소중한 공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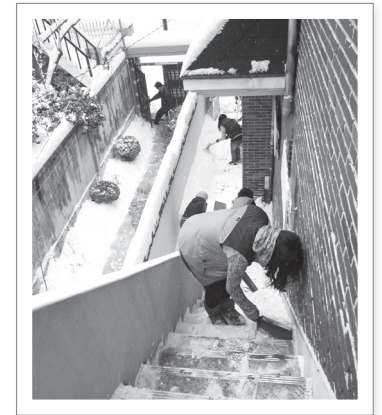
상담소를 새 단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하 모임터 공간이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가 제일 궁금했다. 모임터 때문에 고생했던 날들을 생각하면 과감히 지하 공간을 없애버리자고 제안하고 싶었지만, 다행히 활동가들은 습기와 곰팡이에 굴복하지 않고 모임터를 지금보다 훨씬 쾌적하고 멋지게 만들어 유지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앞으로 만날 새로운 모임터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던 모임터는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활동으로 가득 채워지리라 믿는다. 새로운 모임터에서 태동할 뽕송뽕송한 반성폭력운동이 기대된다.

※ 두나
건강이 최고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야 건강합니다.

합정동 366-24 빨간 벽돌집 사건사고기

오래 | 본 상담소 前 활동가

상담소는 오래된 주택집에 차려진 곳이었다.
지하, 1층, 2층. 그 땀 몰랐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다.
몇 가지 추억을 곱씹어보자.



4 담장이 아슬아슬

옆집 쪽 담장은 옛날부터 금 가 있었다. 그리고 살짝 넘어와 있다. 일 년에 일도씩은 더 기울어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느 동네 담장이 항상 곧게 꼳꼳이 바르랴. 아슬아슬한 담장을 타고 옆집 더덕 넝쿨은 느긋하니 넘어왔다. 선배상근자 경애 언니는 넘어온 건 우리 꺼라고 하셨다. 평화롭던 어느 날, 뒷집 쪽 담장이 무너졌다. 뒷집 창고를 향해 우르르... 사람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었다! 긴급 해결해드려야 했는데 견적을 내보고는 전문가 딱 한분 모시고 우리 힘으로 해보기로 했다. 전문용어로 Do it Ourselves, 벽돌을 어긋어긋 쌓아 올리고, 미장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담장 쌓기 체험이라니.

3 바닥이 찰랑찰랑

어느 여름 장마철. 지하에 내려갔던 어느 활동가가 36.195km를 달려왔던 사람처럼 2층으로 올라와 외쳤다. “지하에 물이 찻다!” 그로부터 사흘간, 우리는 업무를 전폐했다. 바케쓰, 쓰레받기로 퍼내고, 빗자루로 쓸어 퍼내고, 손걸레, 대걸레로 닦아

짜내고... 저녁이 되자 생리대 상자를 열었다.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흡수해주길 기원하며 바닥에 뒤집어 차곡차곡 깔았다. 마포구청 침수가정 지원용 배수펌프도 왔다 가고 어느 정도 물이 잡히자, 몇 차례 전문가가 와서 진단을 했는데 다들 새로운 의견이었다. 결국 두 군데 바닥을 파내 상설 배수펌프를 설치했지만 바닥 침수에 정답 같은 건 없다는 말이 소장님의 미간 주름이 되었다.

2 하수도가 울컥울컥

한국여성재단 노후시설개선 기금을 지원받아 지하 화장실을 고쳤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까. 바닥 하수구에 물이 내려가지 않는 거다. 합정동장님의 소개로 망원동 어느 설비업체 사장님이 오셨다. 집 이곳저곳을 뛰어 살펴보니, 갈고리 철사기계를 가져 오셨다. 1m씩 넣어 또 다른 철사줄을 연결하고 또 연결하여 하수구에 천천히 넣었다. 8개쯤 들어갔나, 집수정 끝까지 철사가 들어간 걸 확인한 후 그때부터는 역으로 꺼내기 시작했는데, 현란한 기술이 시작됐다. 몇m 떨어진 갈고리 끝을 휘적이며 하수구 원통 구석구석을 더듬으며 꺼냈다. 기술자는 결국 주먹만한 머리카락 더미를 건져 올렸다. 뚫린 하수구로 물은 흘러 집수정으로 콧물 쏟아졌다. 끝.

1 상수도 파이프의 비밀

극한 한파가 몰아친 어느 겨울밤이 지나고, 출근했더니 물이 안 나온다. 쫄쫄쫄 틀어놓고 갔건만! 겨우 찾아 모신 언수도 녹임 기사님이 오셨지만 바닥으로 부터 올라오는 직수관에 코일을 감고, 드라이어로 몇 시간을 쏘여봐도 물은 안 나왔다. 그 후로 두 분이 더 오셨는데 다 허탕. 망원동 설비업체 사장님이 오셨다. 또 집을 구석구석 뛰어다녀보더니 옥상으로 가셨다. 우리에게 옥상이 있었다니, 금시초문인 걸. 두 시간 후 “수도를 틀어봐요!” 보이지도 않는 옥상에서 외침이 들려왔다. 틀었다. 콧물... 어떻게 된 거냐고, 어찌 아셨냐고 꼬치꼬치 묻고 듣고는 사장님 문하생이 되고 싶었다. 그해 겨울 상담소 상수도 파이프의 비밀은 무엇이이었을까? 궁금하시다면 상담소 새 건물 집들이에서 만납시다 :)

※ 오매
항상 쓸고 닦고 고치고 살피던 선배들을 기억하며.

추억이 깃든
이 자리에
용기있는
벽돌 한 장을
올려본다

조은희 | 본 상담소 상담자원활동가

처음 상담소에 왔었던 때를 떠올려본다. 일반적인 가정주택을 개조해 조금은 어수선한 듯한 모습이였다. 가정집 같은 생각에 매번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 면접상담을 오신 분들 역시 상담소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모습이 생각난다.

십 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모든 것이 익숙해졌고 친정집 같이 느껴지는 이곳이 새로운 모습으로의 도약을 위해 탈바꿈하더니 무척이나 반갑다. 한편으로 옛날 사진들을 정리하듯 추억을 정리해볼 시간인 것 같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같이 생활했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상담소의 옛 식구들이 오늘따라 더욱 궁금해지고 그리워진다. 한때는 24시간 상담전화를 받았다. 일하면서 상담소에서 밤새는 활동가도 있었다. 참으로 열정적이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상담소는 피가 끓는 청년기가 아니었던가 싶다.

지하공간엔 습기로 곰팡이 냄새가 나고 벽 주위엔 가끔 쥐가 다니는 소리도 들리곤 했었다. 그러다 면접상담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상담담에서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하고 생존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나무재질로 마감하고 색상도 그린 톤으로 하는 등 신경을 썼다. 처음으로 면접상담실이 생기게 되어 얼마나 뿌듯했던지...



그 외에도 지하실의 물난리와 상담부스 방음을 위한 샷시 공사 등 많은 역사가 있었다. 오랜 세월 지내다보니 익숙해져서 불편해도 그러려니 했지만 이제 큰 용기를 내어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리고 새로운 상담소를 기대해본다. 이제 그간 생활한, 추억이 깃든 이 공간을 꼬깃꼬깃 접어서 가슴속의 공간으로 옮겨야겠다.

※ 조은희
상담소를 향한 한발이 궤도를 이루다.

조은희님은 1999년부터 상담소와 인연을 맺어오,
독특한 상담자유행동가이십니다.
'우뢰쌤~' 하고 부르면
씨이익 웃어주시는 모습이 매력적이세요.

아듀, 상담소!

지난 7월 15일은 상담소의 이삿날이었습니다.
12년간 지내던 합정동 366-24번지 사무실에서
떠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던 것도 잠시,
부랴부랴 짐을 꾸려 백여 미터 떨어진 다른 건물에
임시로 기거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7월 25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소중한 인연을 맺어온 많은 분들을
빈 상담소 공간에 모셨습니다.

전 활동가와 회원님들, 반성폭력운동을 함께 해온
가까운 단체 활동가 분들이 자리해주신 가운데
상담소 신축을 알리는 한편

지난 12년을 함께 한 현재의 주택건물에 얽힌 추억과 아쉬운 작별인사,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공간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나누었습니다.
그날의 소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미경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본 상담소 前 소장

상담소는 25년 전, 1990년 8월 뜨거운 여름날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성폭력상담소를 만들 것인가 고심하며 8개월간 준비하다가 91년 문을 열었는데요. 김길자 선생님께서 청운동에 집을 내주셔서 편안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58명이 10만원씩 내서 서초동 7.5평 오피스텔의 보증금으로 500만원을 하고 나머지를 월세로 해서 상담소를 시작했고 이후 양재동으로 갔다가 그 다음 합정동에 오게 된 거죠. 12년간 전세 또는 월세살이를 한 뒤, 12년간 자가주택의 삶을 살게 됐어요. 우리 집이라고 기쁘게 살았는데 오늘은 이 공간에서 일어난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한참 회의를 하고 있는데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지붕의 한 면이 바람에 떨어져서 날아갔어요. 회의하다가 다 나와서 떨어진 지붕을 부여안고 이를 어떡하나 했지요. 그리고 2006년, 회원들께 보답하자는 뜻에서 당시 활동가 원사의 지도하

에 활동가들이 다 같이 댄스 연습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옆에 마침 공터가 있어 연습하면서 이 땅을 사고 마리라, 연결해서 멋진 집을 짓고 말리라 꿈을 꿔는데 금방 건물이 들어와 시야를 가리게 된 아픈 기억도 있네요.

옆집이 바로 붙어있는데 우리가 오죽 사람이 왔다갔다 해요. 오르락내리락하는 소리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에 감이 열리면 담아서 좋은 일 하는 여러분 드시라며 가져오셔서 먹은 고마운 기억이 있어요. 또 한 번은 지하에서 야옹야옹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어서 우리 공간에 우리도 모르게 새 생명이 왔구나 생각했죠. 또 한 번은 2층에서 밥을 먹는데 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내보내자고 새잡기를 한 기억도 나네요.

소중한 기억들 뒤로 하고 물리적으로는 허물어지겠지만 기억 속에 그 모습은 영원히 있을 거고 새로 태어날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본 상담소 前 소장

어느 날 보듬이 선생님이 지하 상담공간에서 2층 사무실로 뛰어 올라오시더니 ‘큰일 났다’ 하시는데, 상담소는 큰일 날 게 많아요. 이게 또 무슨 큰일인가 하고 봤더니 물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뛰어 내려가보니 밑에서 물이 올라온 거예요. 온천도 아니고 냉천이 터진 거지요. 그때가 2009년 11월이었어요. 모든 업무를 멈추고 대야, 쓰레받기로 그 물을 퍼냈는데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암담함이었지요. 하루 종일 30분 단

위로 내려가 물을 뿔어요. 상하수도 누수탐지 하시는 것은 분들 다녀가셨지만 이상이 없고 결론은 땅속의 지류가 땅을 타고 흐르다가 약한 곳에서 터져 나온, 명확히 알 수 없는 종류의 일이었죠. 냉천이 터졌는데 퇴근하는 마음을 아시겠어요? 집에는 가야 하는데 다음날 오면 어떨까 암담했죠. 며칠을 궁리하다 방법이 없어 집수정을 설치하고 그때부터는 장관 뜯어낸 자리에 야외돛자리를 깔아서 회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치유도 하면서 1년을 살았습니다. 닥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집수정 단 뒤에도 저는 밤에 혼자 나왔어요.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집이 가까워서 망정이지 명절에는 혼자 와서 보고 가고는 했어요.

그해 겨울은 폭설이 내려 2층 올라오는 계단이 팡팡 얼어 당시 사무국장 오매가 아침마다 도끼로 얼음을 깎어요. 갑자기 단수도 되었는데 모든 한다 하는 업자가 다 다녀가고 벽을 다 녹이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 나고 원인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물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화장실도 갈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고, 저는 재택근무를 해야 하나 생각까지 하며 3일, 4일씩 버티고 있었는데 귀인을 어렵게 만나 옥상에 있는 물탱크의관이 얼었다는 진단을 받은 거죠. 관을 끊고 다시 연결을 해서 물이 나온다는 소식을 바깥에서 전화로 듣고는 앞서 사람에게 ‘물이 나와!’ 말하고 눈물이 터졌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 이미 20년이 넘는 집이었고 지금은 더 오래됐죠. 2010년 겨울에 재보수 결정을 하고 애써서 고쳤어요. 부탄가스로 밥 해먹다가 도시가스 연결하고, 또 뒤에 창문이 뚫려있었던 것을 발견해 수리했어요. 겨울이면 활동가들이 장갑 끼고 업무해야 했는데 이제 정상적인 냉난방이 되어 장갑 벗고 일할 수 있다고 기뻐한 그 기억들, 잊을 수 없죠. 갖은 어려운 일 거치며 흐른 12년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일 시작한 것에 기쁘고 활동가들께도 감사합니다. 여러 감정이 겹치네요.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제가 자주 간 곳은 지하 모임터예요. 상담소 계단은 디털 업두를 내지 못했어요. 저는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양재동에 있을 때 받았어요. 월채어 쓰는 언니들과 같이 받았는데 그때 교육생을 위해서 화장실 문을 다 뜯어냈던 기억이 나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합정동으로 이사 온 뒤, 이미경 전 소장님이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 문제에 함께 대응해야 하지 않겠냐고 전화를 줘서 이 장소에 처음 온 것 같아요. 2007년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집이 있고 또 자가라고 해서 부러웠지요. 모임터는 제가 처음으로 다른 여러 여성단체와 만나서 제도화 대응이라는 진지한 고민을 시작한 곳이라 좋은 기억이고 운동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올해까지, 언젠가는 2층에 올라가 사무실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무실이 없어진다고 하니 안타까운데 아마 서류가 쌓여있을 모습이 상상은 가요. 다음에 만들어질 공간은 사무실을 구경할 수 있을 정도의 접근성이 있는 공간이었으면 하는 소중한 바람이 있습니다. 건축할 때 많은 걸 고려해야겠지만 누가 오든 부담이 덜 되는 공간, 편하게 느껴지는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백현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자문위원

신축하신다 말씀 듣고 꼭 오고 싶었고 오늘 와서 지난 역사 되돌아보니 많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조록 멋진 건물이 완성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자문위원

힘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활동가 한분 한분이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어린이가 같



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을 늘 해왔어요. 새로 지어질 건물이 이런 따뜻함과 순수함이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임순영

남윤인순 의원보좌관, 본 상담소 前 활동가

서초동 7.5평 오피스텔 시절에 총무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 오피스텔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떠오르는데 제가 처음 갔더니 제 자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했어요. 워낙 좁은 곳이라 눈치를 보고 자리가 있는 것 같으면 앉아서 일했지요. 선배들이 바깥에 회의 나간다 하면 기뻐서 빈자리에 앉아 일을 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4, 5년간 일을 했었는데 2001년 즈음에 열심히 모은 돈으로 집을 샀다는 이야길 듣고 너무 기뻐서 감격의 눈물 흘렸어요. 12년 만에 치유의 공간, 나눔의 공간을 새로이 만드신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그 사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셨을지를 생각하니 그 의미가 살아있는 집이 지어지기를 고대합니다.

우성희

부설 열림터 자원활동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부끄럽습니다. 활동하셨던 분도 계시고 자문하는 분도 계시고, 상담전화 받는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필요할 때 불러주시면 오고 후원회비 종종 내는 것밖에 없어 죄송하고요.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원, 부설 열림터 객원연구원

창문 에피소드를 들으니 상담소에 올 때마다 춥고 더웠던 게 다 그것 때문이었구나 싶습니다. 따뜻하기도 하지만 창문 열면 아주 시원해지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사람들만큼 집도 따뜻하게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진상규명, 고통과 치유, 책임과 기억

마쓰 | 본 상담소 회원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세월호 참사 한 달.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고 초기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최선의 구조를 얘기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말이 오가지만

참사와 관련하여 뭔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구조 상황에 대한 보도행태는

한 달 전의 그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정부, 국회, 언론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무엇이 최선인지를 밝히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

2014.5.16.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 성명서 일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더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단식농성과 도보행진을 이어가며 간절히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특별법 제정은 장벽에 부딪혀있다. 세월호 참사가 단지 한 부도덕한 해운업주와 종교단체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기를 원하는 것처럼 유명인과 구원파로 관심을 유도했던 정부는 최소한의 책임지는 자세조차 보여주고 있지 않다.

고통, 상처, 피해의 경험은 흔적을 남긴다. 특히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 흔적은 도저히 잊히지 않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이 이 흔적을 통해 죽은 이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 그들의 얼굴과 마주하게 될 때 그것이 영원한 고통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이, 생존자들이 죽은 이들에게 (최소한이나마) '정의'가 이루어졌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를 처음부터 지켜보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것,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손 안의 모래알들처럼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촉구 서명을 하고 광장에 나오고 자원활동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한 것일까? 눈물은 결국 마르고 사라져 버린다. 슬퍼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충분히 슬퍼했다'는 말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세월호 참사를 단지 하나의 예외적 사건으로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이 사회의 책임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과 이 참사의 연결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속한 사회 내부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우리가 속한' 사회의 문제이기에 우리의 문제이다. 법적 책임은 없을지 몰라도 분명히 책임이 있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것은 이 책임을 인지하겠다는 것이 아닐까? 살아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 그것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참된 의미일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이 책임을 다하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의 책임, 사회구성원으로

서의 책임,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기억하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방법이다.

오래 전에 죽은 이가 다시 기억난다. 그는 성소수자였으며 일본에서 살해당했고 장례식도 열지 못했다. 지인들이 돈을 모아 영결식을 열었다. 그를 죽인 살해범은 잡히지 않았고 정의는 실현되지 못했다. 남은 것은 변명뿐이다. 그것도 왜, 어떻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가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알지 못하는 파편뿐인 변명이다. 그가 죽은 이후 문득문득 그가 기억나곤 했다. 그때 그의 얼굴은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그의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주변이 환해질 정도로 아름답고 밝은 미소, 경쾌한 웃음소리. 그는 웃고 나는 울었다. 가끔은 나도 함께 웃었지만 대부분은 울었다. 그의 죽음의 진실은 아마도 이제 영원히 풀리지 못할 것이다.

나는 세월호 참사가 이렇게 될 것만 같아서 두렵다. 세월호 참사가 아무것도 해명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못하고 어두운 바다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만 같아서 두렵다. 유가족들이 죽은 이들의 얼굴과 마주했을 때 함께 웃지 못하고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울어야만 할 것 같아서 두렵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진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끔찍하든 밝혀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책임을 바라보자. 그곳에서 기억하기와 애도가 시작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http://sign.sewolho416.org>)

✻ 마쯔
완전변태 (wanbyun.org)

성폭력 피해 이후를 헤엄쳐나가기: <한공주>

현미 | 본 상담소 부설 울림 책임연구원

‘사건’으로서 성폭력 피해는 더 이상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지 않다. 영화 <한공주>는 이처럼 수면 위로 올라온 성폭력 피해를 어떻게 ‘제대로’ 다룰 것인가 하는 오래되고도 새로운 질문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누군가에게 이 영화는 여전히 성폭력 피해를 선정적이거나 비윤리적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 ‘이후’, 사건의 파장 안팎에서 진동하는 피해자의 일상을 그렸다는 점에서 이전의 성폭력 피해를 다룬 영화들과 다르다고 평가받았다.

감독은 여러 인터뷰에서 “극단적 상황에 놓여있는 한 소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 소녀를 둘러싸고 있는 나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주인공 공주를 사건 이후 수영을 배우려고 시도하는, 노래를 좋아하고 잘 하는 소녀로 그려내는 것, 공주를 도와주거나 외면하거나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친구들, 선생님, 부모 등의 주변인의 모습은 이를 위한 설정이다. 또한 영화는 남자 청소년의 집단문화/학교폭력에서 연속되는 집단성폭력의 모습,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합의와 탄원서 서명을 강요하는 가해자 부모들의 모습, 난감하고 귀찮은 표정으로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려는 어른들의 모습 등 성폭력 피해의 다단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눈에 띠는 것은 ‘선생님 어머니’였다. 공주의 전 담임인 아들의 부탁으로 공주를 잠시 맡게 된 ‘선생님 어머니’는 선하고 올바르기만 한 사람이 아니다. 처음에는 공주를 의

심하며 달가워하지 않다가, 공주를 맡으면 가게 일손도 덜고 약간의 생활비도 지원한다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야 함께 살기에 선선했던 사람이다. 또한 불륜의 연애가 들려 동네 여자들에게 “쥐어터지고도”, “나이 먹고 주책” 같지만 연애와 섹스를 즐기는 사람이다. 자신의 세속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실현시키며 사는 솔직한 사람이기에, 오히려 공주와 점차 가까워진다.

‘선생님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공주가 될 수도 있었지만 되지 못한 미래로 다가왔다. 적당히 세속적으로 욕망에 충실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삶, 욕도 듣고 힘도 기도 하지만 견디고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공주 스스로는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주변의 부적절한 대응과 피해의 영향은 이 삶의 가능성을 여러 모로 차단한다.

다른 한편 ‘선생님 어머니’는 악한 의도나 행동은 아니었지만 피해자를 고립된 상황으로 몰아간 주변인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기도 한다. ‘선생님 어머니’는 공주의 피해를 알았을 때 “개들이 잘못했네”라고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집을 떠나는 공주를 붙잡지는 않는다. 공주에게 호의를 보이고 다가왔던 친구도 결정적 순간에 자신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공주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전 담임도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공주의 곁에 계속 있어주지는 못한다. 공주의 엄마는 재혼 후 경제적 압박과 새남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공주를 외면한다.

이러한 각자의 사정과 어쩔 수 없음은 관객에게 공주가 곁에 있었다면 너는 얼마나 달랐겠냐고 되물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라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을 때, 그것이 거대한 파도처럼 공주를 덮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파도에 공주가 배우고 있던 수영은 크게 쓸모없어 보인다.

현재로 범람해오는 과거의 트라우마, 미래를 휩쓸어가는 현재의 상황들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영화는 공주의 캐릭터를 ‘순수하게’ 구축하고 공주의 상황을 고립무원으로 이끌어간다. 이 영화의 한계와 의아스러움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청소년 집단성폭력에서 피해자는 보통 가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모텔에 가는 식으로 어울린, 가출, 성매매, 일진문화 속에 있는 ‘일탈’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비난받



거나 피해를 의심받기도 한다. 하지만 공주는 그러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편의점 알바를 성실히 하고 친구를 살뜰히 챙기고 부모의 부재에도 빛나가지 않은 소녀로 나온다. 이에 비해 공주의 친구 화옥은 조금 놀기도 하고 이미 성경험이 있어 “재 소문난 애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하는 존재이다. 화옥을 주인공으로 했다면 이 영화는 동일한 방식의 재현과 반응을 일궈낼 수 있었을까. 이미 죽은 환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화옥은 영화의 윤리적 한계, 재현의 한계를 드러낸다.

또한 영화는 전 담임선생님 말고는 공주를 지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화의 시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은 어색하다. 영화는 모티프가 된 사건의 시점(2004년)보다 이후, 아마 2010년 언저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시기는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여러 개입이 활발한 때이다. 감독은 성폭력피해를 둘러싼 환경을 섬세하게 다루기 위해 여러 조사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공적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내가 한공주를 만난 것은 4월 말이었고 세월호 사건 이후였다. 우리가, 이 사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익사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두 모습이 겹쳐졌다. 꽤 고통스러운 겹침이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들, 떠올라도 썩어가는 것들의 모습에 어떻게 귀 기울이고 말할지 직면하자는 메시지는 이제 감독이나 영화의 것을 넘어 우리의 것으로 오고 있다.

연구소 올림의 미국 출장기

추지현 | 본 상담소 부설 올림 프로젝트연구원

연구소 '올림'의 미국 선택

9월이면 부설연구소 올림이 출발한지도 1년이 됩니다. 올림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성폭력피해의 치명성을 강조하고 피해생존자를 병리화하는 담론을 변화시키고자 다양한 연구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담론은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등극시킬 정도로 강력한 사회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이것에 부합하는 무기력한 피해자의 모습을 진정한 '피해자다움'으로 요구하면서 새로운 폭력이 되기도 하지요. 그 이면에는 피해자를 '버려진 몸'으로 바라보며 동정하는 감정들도 존재하구요. 즉, 성폭력피해의 의미에 대한 공감능력이 사회적으로 확장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우리 연구의 출발입니다. 성폭력피해에 대한 진정한 '공감', '극복'이 과연 무엇일지도 고민이구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해외 현장 방문이 기획되었는데요. 그 관찰 대상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반성폭력운동의 성과가 법제화를 중심으로 발흥하고 가시화된 곳이기도 하거니와, 성폭력피해의 치명성과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핵심으로 하는 엄벌주의적 형사정책을 생산해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의 성폭력 정책의 많은 부분을 '선진적'이라며 수입해왔기에, 우리가 현재 맞닥뜨린 고민을 앞서 했을 미국의 반성폭력운동 활동가들을 만나 이야기해보고자 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전후한 미국 최대의 휴가기간인 7월 초, 맨하탄을 거점으로 뉴욕시의

5군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콜롬비아 대학 내 성폭력센터를 방문해 많은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퀸즈에서 20여 년째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의 변호를 맡아오신 이찬우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분을 통해 이 분야의 전담 판사로 오랜 기간 일해오신 퀸즈의 판사분과 면담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당시 만난 활동가들의 넘치는 에너지, 상호간에 공유되었던 신뢰와 환대가 다시 생각납니다.

상존하는 성폭력 통념과 서비스 중심의 개입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성폭력 담론 역시 한국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미국은 부부간이나 동성간성폭력, 데이트성폭력 등 성폭력의 외연이 우리보다 사회적으로 많이 확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비난 담론 역시 여전히 강고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태도에 대하여 콜롬비아 대학의 한 활동가는 '피해자에게 문제를 찾는 순간 자신의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난은 인간의 생존본능에 가까운 것'이라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여성센터'의 한 활동가는 미국 사회도 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섹스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에 열림터와 같은 성폭력생존자쉼터가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성폭력생존자만을 위한 쉼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스티그마(Stigma, 낙인)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 것이지요. 성폭력피해에 대한 강고한 통념과 낙인 때문에, 이들은 담론의 변화나 성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적 문제제기보다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사실을 법적,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우선해서 다룰 수밖에 없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만을 강조하는 최근의 경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군 셰퍼드’라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범죄 프레임 중심의 성폭력 개입이 갖는 한계를 지적했는데요. 해답은 더 많은 경찰서, 더 강한 수사권, 많은 검사가 아니라, 커뮤니티 내에 취약한 어린이, 여성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라 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계 이주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를 지원하고 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단체인 ‘아시아여성센터’ 역시 반성폭력 운동단체가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사회 통념을 바꾸어 나가는 것 역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치유와 법적 보호 지원을 넓은 의미의 건강 이슈로 삼고 서비스 제공 중심의 개입을 확장해나가고 있는데요. ‘뉴욕시 반성폭력연합’ 역시 반성폭력 운동단체의 역할이 서비스 제공만으로 축소된다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공공보건’이라는 사회적으로 호소력 있는 패러다임을 활용하는 것이 반성폭력운동의 입지를 확보하고 펀딩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부러웠던 것은, 이 기관이 초동조치와 법적 조치를 함께 할 수 있는 법의간호사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그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전문직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전문 영역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한국도 성폭력을 정의하는 권력이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법률전문가 등에게 이양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이러한 지점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성폭력운동의 최근 이슈들

우리가 방문한 기관의 운영 방식과 각론은 조금씩 달랐지만, 이들이 진단하고 있는 문제나 미국 사회의 현재 분위기에 대한 논의들 속에서 몇 가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된 성폭력피해자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한 작업들이 생

각보다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2011년 4월부터 정부(교육부)가 대대적 가이드라인 내놓으면서 대학 내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들의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며 반성폭력운동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 백악관에서 테스크포스(TF)팀이 꾸러지기도 했는데요.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전국적인 연대가 최근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지하철, 길거리의 성희롱 등 그간 간과되어온 일상적 성폭력에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공유하고 가해자의 사진을 찍어 웹에 올리는 할러백(Holla back) 운동이 그 중 하나인데요. 사람들의 불안과 집단적 울분이 특정 가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집중되는 것은 문제적일 수 있겠지만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젠더폭력의 실상을 특히 젊은 세대들이 공유하고 문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신선해 보였습니다.

둘째, 다문화와 커뮤니티의 가치를 강조하는 미국의 특징과 관련된 것입니다. 교환학생, 외국인학생 혹은 아시안 등 소수인종의 집단거주지역 거주민에 대한 맞춤형 개입 방안이 활발히 강구되고 있었습니다. 집단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커뮤니티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스티그마(Stigma, 낙인)가 가동되거나 낮은 신고율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되어온 이들 집단에 개입하기 위해, 해당 지역사회의 언론을 활용하거나 그곳의 학교, 대학과 연계를 맺거나, 지역 성폭력전담반과 소통하는 등 지역사회 기반의 개입 정책과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 의사를 활발히 드러내지 않는 남아시아 그리고 중국계 한국여성들이 계급적, 언어적, 문화적 문제로 인해 더 주변화, 소외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성폭력을 젠더폭력의 일환으로 가시화시키려는 노력인데요.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이 분리되면서 탈젠더화된 이슈로 다루지는 경향에 맞서, 가정폭력, 길거리 성희롱, 인종차별에 기반한 혐오범죄 등을 같이 다루는 젠더 저스티스(Gender Justice) 테스크포스(TF)팀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뉴욕시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서 도입된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군 셰퍼드’의 프로그램이 적극 인용되었고, 이 기관은 다른 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구체적 대안 마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를 제공해온 ‘세이프 호라이즌’은 그동안 형사절차, 상담,

사건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해왔는데 이것이 이번 시장이 선출된 직후 가정법원센터(Family Justice System)의 설립을 주도하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하네요. 검찰청을 방문했을 때 반성폭력 운동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 수십 곳이 일종의 리셉션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진기한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법원센터였습니다. '세이프 호라이즌'의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모든 상황에서 접근 가능한 기관'이 되는 것을 이 센터 구축의 모토로 하었다고 했는데 성폭력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일련의 폭력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성희롱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동이나 인종 차별 등의 문제와 엄밀히 분리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이곳을 방문해 자신에게 필요한 상담에서부터 신고수사절차를 바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한계이자 기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방식 안에는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하고 보수적인 성 담론을 재생산하는 것과 같이 성폭력피해 극복을 오히려 가로막는 여러 가지 한계들도 존재합니다. 미국은 여론에 민감한 선출직 시장제 도나 사법제도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는 것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강력한 반성폭력 의제 선정과 펀딩 확대에 기회가 된 측면도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는 방식과 균형 잡기의 노력이겠지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펀딩에 의존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축소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성폭력 의제를 알리고 정책입안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노력, 전문 영역 확보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성폭력이 떠들썩한 사회적 이슈로 소비되는 상황이 결코 '기회'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피해의 의미를 이해하고 피해를 극복하는데 유용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담론을 흔들고, 어떻게 개입해야 할까요? '올림'이 해야 할 연구는 여기에 구체적인 밑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없다면 어떤 연구도 힘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호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손님은
본 상담소 박부진 신임이사님과 디자인이즈 추정희 실장님입니다

interviewer_토리 (본 상담소 사무국장)
interviewer_란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생존자들의 삶의 여정에 함께한다면
그렇게 우리는 행복해지면 됩니다



본 상담소 신임이사 박부진

상담소의 '특별한'
디자인을 만들어 갑니다



디자인이즈 실장 추정희

생존자들의 삶의 여정에 함께한다면 그렇게 우리는 행복해지면 됩니다

본 상담소 신임이사 **박부진**

정리 _ 토리 | 본 상담소 사무국장

그동안 나눔터에서 자주 소개드리지 않았지만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13명의 이사님들이 항상 상담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4월 이사회를 통해 상담소에서 활동을 시작하신 박부진 신임이사님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나갈
박부진 이사님을 지금 만나러 갈까요?

Q 박부진 이사님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수락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원님들에게 이
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부진입니다. 저는 문화인류학을 전공했고요, 지금 아동
학과에서 심리상담 분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Q 문화인류학을 전공하시고 모래놀이치료와 같은 가족상담이나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분
야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A 문화인류학을 전공하면서 인간이해와 인간사랑을 익혔어요. 학위가 끝난 다음에
학교에 자리 잡으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혜택을 이 세상으로부터 받았다는 생각이 들
었고, 이제부터 무엇을 해서 이 혜택을 세상에 돌려주고 떠날까 하는 생각을 사십대
정도부터 했어요. 인류학을 공부할 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듣고 수
집하면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아픔을 가진 사람과 나누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가사조정위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이혼가정의 아동들을 만나고 가족문제에 관심이 많
아졌죠. 학교에 마침 아동학과가 생겨 아동학과로 소속을 옮기고, 세상에 봉사하자는

마음에서 봉사의 방향을 상담 쪽으로 잡았어요. 그
때부터 체계적으로 상담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Q 교수로서 다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A 정말 바빴어요. 한국에서 모래놀이치료가 매우 초
기단계였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강의를 듣거나 해외 전
문가에게 수퍼비전을 받았어요. 모래놀이치료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이야기를 형상화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알고

그 매력에 완전히 빠졌죠. 그래서 이제는 심리상담이 내가 하는 공식적인 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어요. 제 마음이 그 방향으로 그냥 흘러간 거예요. '왜 그
랬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그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까 좋고 스스로 그 매력에 빠져서 공부를 한 거죠.



Q 80년대에 가사조정위원을 하셨던 이야기가 궁금해요. 상담소가 91년에 문을 열고 그 이
후에 성폭력특별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성폭력이라는 단어도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이잖아요.
또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폭력이 일어나
는 가족 안에서 상처받은 아동이나 심대를 만나셨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A 아동의 경우, '가족은 사랑하고 감싸 안아야 한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
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족은 아동에게 생존을 위한 일차적 보호공간이기 때문에
가족을 흠집 내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가 끊임없이 폭
력을 행사하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걱정하고 사랑해요. 때로는 피해 받은 아동이 폭력
을 저지른 부모를 감싸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 안의 폭력을 끝까지 감추는 시대를 오랫동안 살았죠. 그 아픔을 속으
로만 담고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 당시의 문제
가 자기 속에 딱딱한 껍질에 싸인 채, 자기 자신도 건드리기 무서운 상태로 무의식 속
에 숨겨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딱딱한 껍질을 뽀아내고 자기가 그 경험을 다시 환



기시켜서 직면하고 확인해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기 사건을 객관화한다고 할까요?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밖으로 그것을 표출할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해요. 자기 자신을 공격하거나 좌절하거나 위축되고, 그것이 다시 외부로 향한 공격성으로 나타나고요. 다시 말해서 자존감을 잃고, 사회성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적응이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으니, 이중의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감춰왔던 피해를 끌어내서 그 피해가 피해자 자신을 해치기 전에 다루도록 하는 것이 성폭력상담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요.

Q 스스로를 공격하기 전에 치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자신에게 해가 되는 연애관계를 반복하는 관계 맺기 습관을 갖고 있는 성폭력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말하기를 한 이후에도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오히려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말하기를 통해 지지그룹도 생기지만 한편으론 내면을 더 돌아봐야하는 그런 과제가 남기도 해요. 활동가들이 생존자들과 성폭력 경험을 둘러싸고 중요하게 이야기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시나요.

A 뉴스레터를 통해서 말하기대회나 작은말하기 소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죠. 피해가 극복되지 않으면 상처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대회에 참여하시는 분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상처를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 정말 아팠구나' 하고 안아줄 수 있는 상태는 아직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픔을 받아주는 일 이외에 생존자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일차적 생활적응 문제를 함께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보통 여자의 삶이 아닌 망가진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저력을 주는 게 자존감이에요. 내가 소중하다는 존재

감을 상실한 경우, 현실적응능력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사회적 역할을 갖게 한다든지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주면서 마음의 상처도 같이 해결해주어야 그 여성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혜택을 줄 것인가, 비록 소수에게라도 다양한 지원을 해서 진정한 회복에 이르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저는 생존자가 적응력을 갖고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만 도움을 받는가 물으면 할 말은 없지만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때 탄탄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제 활동에서도 양화된 실적과 상관없이 '우리가 몇 명을 살려도 좋다. 일 년에 몇 명이라도 사람 살리는 작업을 하자' 하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돼요.

Q 이사님은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지역사회를 비롯해서 사회공헌을 하는 단체도 만들고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직을 결심하시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A 심리상담에 관심을 갖고 그쪽을 보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관을 만들었어요. 진행하다보니까 봉사라는 개념이 한국에서는 아직 일반적으로 수용적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한국의 봉사는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불쌍한 사람에게 무엇을 조금 주는 정도의 봉사예요. 봉사하면서 이름도 내세울 수 있는 걸 찾는 분위기도 있죠. 힘든 상황에서 저는 꾸준히 제 일만 하자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관계를 맺게 된 건 권인숙 선생님의 활동을 보며 뭔가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단체가 얼마나 열악한가 하는 건 제가 경험해봐서 아니까 기여할 게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받을 사람이 많을 테니까 제가 많이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뉴스레터를 보니까 상담은 전체의 일부고 사회 활동도 많더라고요.

Q 성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활동도 상담소의 주요 활동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회 인식변화는 성폭력생존자들을 위한 활동의 연장선이기도 하고 상담소가 끈기를 갖고 주력해야 하는 활동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A 중요한 부분이죠. 성폭력은 가치관에 따라 상처를 인식하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성의 성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대단한 상처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고, 치명적인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상처 받은 경험이 금방 사라질 수도 있지만 평생 내면에서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여성의 몸에 대해서 한정된 가치를 부여받았기 때문이죠. 성폭력상담소는 여성이 그 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데올로기의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테니, 우린 좀 더 끈기를 가져야겠죠?

Q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상담소가 어떤 활동을 더 해나가면 좋을지 제안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성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문화적인 것, 여성 몸에 대한 가치 등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런 문제들을 다양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소가 교육프로그램을 상시로 운영하면 어떨까요? 여성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여성의 자존감, 내가 인간으로서 소중하다는 가치를 가지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강좌나 프로그램을 알려서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고, 성폭력을 이슈로 해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되도록 기획하면 어떨까요?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자가 상담 받는 곳이라는 메시지가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그것보다 성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고 그 분야의 하나로 성폭력 피해 여성 관련한 사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큰 요구인가요? 성폭력상담소라고 하면 여성은 계속 피해자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그런 부분을 전환해서 어떻게 하면 여성이 더 주체가 되게 할까를 고민하는 큰 틀로 앞으로의 활동의 방향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인터뷰가 끝나고 이사님에게 활동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힘들지만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 활동하면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 주고 그 사람 인생의 과정에 함께하자. 이 순간에 함께 있는 것으로 좋아 행복해 이 시간을 잘 보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최선을 다한 만큼 행복해지자”는 말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맞이할 새 공간에서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는 활동가들이 불끈 힘을 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여성들의 삶과 인권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해오 박부진 이사님과 함께할 앞으로의 활동이 두근두근 기대됩니다. 회원님들도 앞으로 박부진 이사님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 상담소의 ‘특별한’ 디자인을 만들어 갑니다

디자인이즈 실장 추정희

정리_란 |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상담소 소식지 「나눔터」와 「반성폭력」의 디자인을 재능기부를 해주고 계시는 디자인이즈 추정희 실장님을 만났습니다. 상담소와 인연을 맺은지 올해로 10년째라는 추정희 실장님께 상담소와의 인연과 앞으로의 바람에 대한 의견들을 수 있었습니다. 꼭 만나고 싶었던 디자인이즈 실장님과의 즐거웠던 시간을 지면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Q 추정희 실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을까요? 좀 쑥스럽네요. 책과 홍보물들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만나고 싶었습니다’에 소개된 분들을 보면 대부분 상담소와 활발하게 활동도 하시고 지속적으로 반성폭력운동에 기여해 오신 분들이시는데... 저야 상담소 홍보물을 제작해 오던 인연에 ‘쫓불리스트’로 힘들어진 상담소의 재정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었던 것인데 인터뷰에 응하려니 좀 거창한 것 같아요

Q 회사 이름이 ‘디자인이즈’인 이유가 궁금했어요, 또 ‘디자인이즈’의 의미가 뭐죠?

A 사람들이 궁금해하길 바라고 지은 이름인데 물어주니 반갑네요. 보통 회사나 단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지향과 정체성을 담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도대체 뭘까? 또 디자인 회사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등등 여러가지 생각을 했지만 이걸로 정하면 다른 게 빠진 것 같고 또 한편으론 너무 규정적인 것 같기도 했어요. 그

래서 'Design is ...'예요. '...' 즉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남겨 둔 것이죠. 'A는 B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A는 C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디자인이즈'는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하게 생각하려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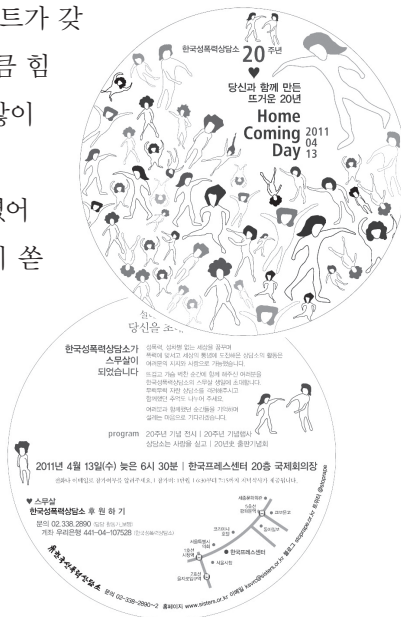
Q 상담소와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나요?

A 상담소가 처음 생겼을 땐 지면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어요. 초창기의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굉장히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거든요. 이후 상담소와 더 친숙하게 된 것은 초창기 상담소 활동가 출신들이 만든 페미니스트카페 <고마>를 통해서 였어요. 운영자 중 한 명이 절친한 친구였거든요. 상담소와 함께 일하게 된 건 2004년 '여악여락 콘서트'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때 이후로 상담소 홍보물과 소식지 등을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보니 딱 10년이 되었네요.(웃음)

Q 상담소에서 부탁드렸던 작업물 중에 기억이 남는 작업물이 있으신가요?

A 아무래도 처음 작업했던 '2004 여악여락 콘서트'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홍보물의 종류도 많았고, 빡빡한 시간과 콘서트가 갖는 상황적 변수들로 인해 사건사고도 많았어요. 그만큼 힘든 부분도 많았고 함께 나눴던 보람도 있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작업은 20주년 홈커밍데이였어요. 2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상담소도 열정을 많이 쏟았고, 저도 더불어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20주년 홈커밍데이의 이미지 컨셉을 상담소 20년의 역사를 함께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즐거운 분위기로 잡았는데 상담소 20년에는 즐겁게만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고통과 아픔, 분노와 투쟁, 위안과 연대의 시간들도 있으니까요. 홈커밍데이의 즐거운 분위기 속에 이런 의미들을 어떻게



게 녹여낼 것인가? 그래서 여러가지를 고민하다 일단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을 표현하되 개별요소에 힘을 빼고 스토리가 엮이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뭉쳐지는 모양을 통해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밝은 칼라를 통해 홈커밍데이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표현되도록 했어요. 그리고 뜻깊은 행사이니 만큼 행사가 끝나면 버려지는 행사홍보물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팬시적 요소를 가미한 동그라미 모양의 엽서도 만들었어요. 누군가는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상담소에서도 평가가 좋았고, 개인적으로도 애정이 갔던 작업이었어요.

Q 맞아요, 활동가들이 상담소 20주년 디자인을 상담소 홍보물 중에 최고라고 꼽는데요. 저는 10회 말하기대회 디자인이 너무나 좋았어요. 상담소 홍보물을 디자인할 때 참고하는 요소나 고려하는 지점이 있으세요?

A 20주년 디자인을 좋게 봐주니 저도 기뻐요.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참고하는 것은 그때 그때 케이스별로 다른 것 같아요. 고민하는 과정에서 글을 읽을 때도 있고 이미지를 모을 때도 있어요. '지금' 포스터 경우는 지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갖는 종적인 시간과 횡적인 시간을 함축한 이미지 요소를 '지금'이란 단어의 모음(1, 一)에서 찾았어요. 10회 말하기대회 '지금'이 담고자했던 것 또한 1회~9회까지 내려오는 시간과 9회와 11회 사이를 관통하는 시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기획의도를 잘 파악한 덕분에 서로 만족스러웠던 것이죠. 기획자와 디자이너가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데, 점점 이런 과정들이 생략되어 아쉬울 때가 많아요. 또 상담소 작업을 하다보면 상담소 사진이 너무 없다는 점이 많이 아쉬워요. 피해 생존자들의 사진은 얼굴이 노출되면 안되니까 사용할 수가 없고 또 기록사진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상담소 활동과 관련한 사진들을 실험적으로 찍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상담소 활동에서 의미있는 오브제를 여러 각도로 클로즈업해서



찍는다든지, 인물을 배제하고 면을 쪼개서 찍어본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다보면 그 안에서 상담소만의 스토리나 이미지가 생성될 것 같아요.

Q 오늘 인터뷰 사진도 유념하여 촬영해보겠습니다(웃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담소 활동이 있으신가요?

A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요. 관심은 많은데 사실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처음엔 '대회'라는 이름이 상당히 어색했어요. 누가누가 잘하나 같았거든요. 그런데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지켜본 말하기대회는 참여자의 아픔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위안하고 지지하는 자리이자 다채로운 활동들을 통해 아픔이 승화되는 과정들을 담고 있어 참 좋았어요. 행사 당일만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함께하는 과정도 특별하게 보였어요. 10회를 넘게 행사를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서로를 치유하는 힘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Q 마지막으로 회원으로서 상담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A 활동가들이 좀 더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활동가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 이제는 아는 얼굴이 별로 없네요. 또 온라인의 편리함으로 인해 만나지 않고도 처리하는 일이 많다보니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전화를 해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전보다 상담소에 대한 애정이 사그라들고 있어요.(웃음) 물론 제가 상담소 활동에 많이 참석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앞으로는 종종 나갈게요 ^^)

사무실에 선뜻 초대해주시고 향기로운 차를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추정희 선생님은 오프라인 소식이 필요합니다. 여겨지든지 질문해주셨는데도, 차분히 정독할 수 있고 주변에 나눠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시에 진정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상담소에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4개월 전에 입사한 신입 사원 인데요, 팀장이 입사 초기부터 둘만 있을 때마다 남자친구가 있는지 묻고 허리를 감싸는 행동을 지속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어깨를 감싸며 남자친구 이야기를 묻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정중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별다른 소용이 없어서 얼마 전에 제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부서 팀장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회사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시에 진정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빨리 해결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From 공금이)

A 안녕하세요, 공금이님. 지속된 피해로 많이 힘드시지요. 회사 내에 믿을 만한 상사에게 성희롱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구하고자 하셨는데,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해결방법을 찾고 계신 상황이지요. 공금이님은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시에 진정을 고려하신 점으로 미루어보아, 그만큼 적극적으로 가해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등의 해결방법을 찾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요. 더불어 동시에 진정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성희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금이님의 질문에 대한 답과 두 기관별 해결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이야기해드릴게요.

성희롱을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시에 진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피해자가 성희롱에 대한 진정을 동시에 제기할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두 국가기관이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에서 진정 사건 조사를 중지하거나 각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동시에 진정을 하더라도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성희롱을 해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각 기관별 성희롱 진정 과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노동부를 통한 해결과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마지막 피해로부터 3년 내에 진정할 수 있고,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부를 통한 해결은 인권위에 비하여 신속한 편이고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또한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비하여 인권위를 통한 해결 과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마지막 피해 일로부터 1년 이내의 피해에 한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인권위는 성희롱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노동부에 비하여 높은 편입니다. 또한 합의, 고발 및 징계 권고, 특별 인권 교육,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와 같이 구제조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사법적인 절차인 행정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나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노동부의 조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같은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노동부에서 성희롱 피해를 조사하지 않았다면 다시 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국가기관을 통한 해결 외에도 사법적인 해결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이님이 허리와 어깨를 만진 성추행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해결과정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시일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며, 증거도 분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형사적 해결과정 이후에는 노동부나 인권위를 통한 해결은 불가능해진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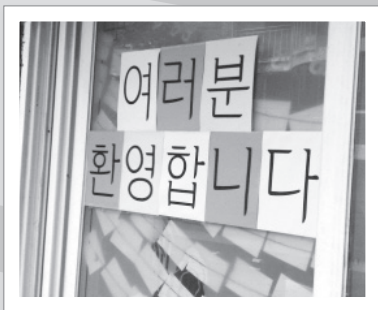
이 외에 회사 내에서 다른 해결 과정을 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직 내 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피해사실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직원회, 여성위원회, 노동조합 등 회사 내의 집단이나 고충처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의 회사 내규에 따른 해결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궁금이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보는 것을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현재 궁금이님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간 성희롱을 한 팀장의 행위, 그 간의 해결과정, 궁금이님의 감정과 고민을 글로 기록하는 것도 혼란스러움을 벗어나 해결의 방향을 잡는 데에 좋은 길잡이가 될 거예요. 끝으로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궁금이님에게 응원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궁금이님의 사건해결지도를 그리는 길에 상담소도 함께하겠습니다.

<FROM. 차차>

“필요한 사람에게
꽃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터 20주년 기념사업 ‘홈커밍데이’ 후기



1994년에 개소한 이래로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여성주의적 성장과 자립을 돕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열린터가 올해로 20년을 맞이했습니다.

20주년을 더욱 의미 있게 기념하기 위해 열린터에서 생활했던 퇴소자들과 전 활동가들을 초대하는 ‘홈커밍데이’를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열린터를 거쳐 간 퇴소자들에게 연락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핸드폰 사용이 일상적이지 않았던 예전에는 보호자 연락처만 있거나 오랜 세월이 흘러 연락처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 연락이 닿지 않는 퇴소자도 많아서 더 많은 이들이 같이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열린터 활동가들은 퇴소이후 처음이면서도 아주 오랜만에 방문하는 열린터를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까 고민한 끝에 200여장의 사진을 벽에 장식했습니다. 열린터에서 살면서 참여했던 다양한 치유회복프로그램과 여름방학이나 명절을 맞아 떠났던 여행에서의 즐거운 모습이 담긴 사진 속 모습들이 추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26일, 연락이 닿은 퇴소자들과 전 활동가들이 각자의 추억이 깃든 열린터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열린터에 오자마자 살았던 공간을 둘러보며 ‘이곳이 그리웠다’는 퇴소자의 말에서 반가움과 내 집에 온 듯 편안함이 묻어나왔습니다. 퇴소 후 열린터 사무실 외에 생활공간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열린터를 다시 방문하는 것은 퇴소자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살았던 시기가 달라서 서로 잘 모르기도 한 참여자들은 동그렇게 모여앉아 자신의 별칭과 열린터 생활시기,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린터에서 4년을 넘게살았던 선토끼는 ‘열린터에서 청춘을 보냈다’는 한마디로 모두의 공감을 자아내며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주라는 스스로 ‘살면서 바른 생활인으로 평가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함께 생활했던 다른 퇴소자의 폭로로 민망해하기도 했습니다. 동글이는 ‘올해 20살인 자신의 나이와 열린터 나이가 같아서 30주년과 40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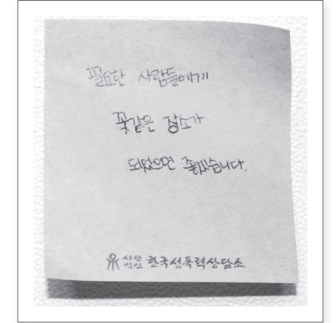
년에도 늘 열림터를 기억할 것 같다'는 말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잔칫날은 양손이 선물로 가득해야겠지요?! 열림터가 야심차게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 10월에 있을 2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홈커밍데이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에 십사리 자리를 뜨지 못한 퇴소자들은 결국 실컷 수다를 떨고 엽기사진도 찍으며 밤이 되어서야 헤어졌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열림터에서 전 활동가와 퇴소자들 30여명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참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열림터가 생활인이 아닌 이들로 이렇게 복잡복잡한 적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으로 인한 갈등, 공동체 생활의 어려움에 열림터 생활이 힘들기도 했을 텐데 퇴소자들의 추억 속에 열림터가 그립고 따뜻한 곳으로 기억되고 있어서 활동가로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퇴소자들 뿐만 아니라 전직 활동가들도 오늘 처럼 퇴소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했습니다. 사회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퇴소자들에게 힘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열림터는 앞으로 매년 1~2회 홈커밍데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다음에는 꼭 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림터라는 공간에서 함께 성장한 퇴소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홈커밍데이에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열림터 연혁〉

1994. 9. 14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개소
1995. 9.	개소 1주년 세미나 '내일을 여는 열림터' 개최
1999. 9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개최
1999. 10	도곡동으로 이전
2000. 4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사업' 주관
2001. 4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활성화 사업' 주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침 '내일을 여는 쉼터' 발간
2002. 3	합정동으로 확장 이전
2004. 3	자립지킴이공동체 '하담' 개설
2004. 5	전국여성성폭력관련 시설 평가 전체 1위 선정
2004. 10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보호시설 입소 성폭력피해 생존자 지원현황과 과제'
2006. 7	'하담' 운영 중단, 고양여성민우회에 시설 이관
2007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 매뉴얼 '나침반을 찾아라' 발간
2013. 3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북 콘서트 개최
2014. 10	열림터 20주년 기념식 및 친족성폭력 도서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 출간(예정)

2014 상반기 열린터 다이어리

2월

우리나라 최대 명절, 설날

명절인 만큼 함께 모여 전도 만들고 세배도 하며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꾸뻑꾸뻑 세배하는 것을 쑥스러워하던 생활인들은 세뱃돈을 받은 후엔 힘박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였습니다. 노래방에서 목이 설 만큼 노래 부르고 맛집을 찾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겁고 풍요로운 우리들의 명절을 보냈습니다.



3월

귀여운 친구, 동물치료 프로그램

귀여운 강아지들과 인사를 하며 어찌할 줄 모르던 첫 만남에서부터 이름을 부르며 보고 싶어 하는 헤어짐까지 함께 했습니다. 늘 강아지의 귀여운 모습만 보다가 직접 안아보고 만져보고 밥을 주는 훈련을 통해 동물과 교감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2014. 1-6 Diary



4월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시간, 몸 워크숍

경직된 몸을 이완하고 타인의 몸과 내 몸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사지와 동작 만들기, 소리내기 등 여태껏 해보지 않았던 몸 사용을 통해 몸을 조절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평소 공부와 스트레스로 몸이 찌뿌듯하다는 생활인들도 몸 워크숍 하는 날엔 유독 활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5월

양화진 음악회

잔디 위에 돗자리 깔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음악회를 즐기고 왔습니다. 음악회가 처음인 생활인은 두근대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모두들 노래를 열심히 감상하며 신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녁 바람과 함께 한 음악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돕니다.



6월

내가 뭘 돈 쓸까, 경제교육

나의 경제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생활인들이 경제교육을 통해 돈을 어떻게 벌고 모을 것이며 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배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앞으로 생활인들의 경제관념이 잘 자리 잡길 바라며 특히 자립하는 생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알뜰살뜰해지길 바라봅니다.

상담원 봄MT 스토리

헤나 | 본 상담소 상담자원활동가

올봄은 꽃이 일찍 피고 후에 비가 바로 와서 일찍 저버렸다. 최근 몇 해 동안 제대로 된 꽃구경도 못해서 올해는 기필코 꽃구경을 가려 했던 나로서는 상담원 엠티는 나들이처럼 기대되었다.

많은 인원이 함께 하기 위해 도심 속 자연공간인 북한산자락으로 숙소를 잡았다. 숙소 가기 전 두부요리로 점심을 먹었는데 손수 만든 두부 맛이 벌써부터 자연의 향을 느끼게 했다. 숙소에 짐을 풀고 프로그램 전에 주변을 산책했다. 초록내음을 맡으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다. 뭐가 이리도 할 얘기가 많은지...

‘나와 상담소’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은 시작되었다. 상담소에서 나는 누구인지 한 단어로 지어보고,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에게 실타래를 던져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상담소에서 일하는 것이 나의 삶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인식하지 않았으면 편했겠지만 상담하면서 인식해야만 했고 인식했기에 삶의 의미로 자리 잡은 것들을 돌아보았고, 상담 활동에 익숙해지면서 조금은 나태해진 나의 마음가짐을 점검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바로 이어진 프로그램에서는 각자가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적어서 누구인지 알아맞히는 것이었다.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다’, ‘놀이기구를 무서워한다’,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을 가지고 싶다’고 썼다. 조금은 추상적인 표현이라 그런지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내용의 주인공이 나일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그 덕에 동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이 ‘문학소녀’, ‘수동공격형 성격’이다. 문학소설을 많이 못 읽고 삶을 살아온 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맘으로 작년부터 문학소설을 읽어보려고 했던 시도가 빛을 내기 시작했나 하는 뿌듯한 생각을 들게 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잘 알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며 오랜 시간을 살았던 나였기에 제시하기 어려운 것들을 표현하고 제안하는 방식이 미숙하게 비춰졌을 수 있었겠구나 하고 되짚어보는 계기도 되었다. 상담소에서 일하면서 하고 싶은 것, 배워야 하는 것, 제안하고 싶은 것, 바꾸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 것이 때론 힘들지만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나는 왜 이리도 자연바람을 쐬면 식욕이 돋는지, 숙소인 수련원에서 나온 저녁도 평소보다 훨씬 맛있게 많이 먹었다. 영화감상을 하면서 먹은 치킨도 너무 맛나게 먹었다. 다른 사람들은 영화 보는 데 여념이 없는데 방해 안 하려고 조심히 많이 먹은 치킨 맛은 최근에 먹어본 것 중 최고였다. 소재가 조금은 파격적이었던 영화 ‘투마더스



(Two Mothers)'를 본 후, '저런 바닷가에서 사랑을 나누고 싶다' 부터 시작해서 친구 아들과의 사랑, 여성의 우정, 여성 공동체, 밀회(드라마), 20살 연하남과의 연애 가능성 등 다채로운 생각들을 서로 쏟아냈다. 보통의 지인들과는 쉽게 나눌 수 없는 얘기도 머릿속 '필터링' 없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상담소에서 일하는 재미 중 하나인 것 같다.

보물찾기도 이어졌다. 어린 시절 소풍갈 때 했던 보물찾기가 그때는 그렇게 재미있지 않았는데 상담소에서 하는 보물찾기는 이상하게 열심히 하게 된다. 큰 방안에 숨겨진 숫자쪽지를 찾겠다고 양말로 방청소를 다 했을 것이다. 보람되게 나는 3개나 찾고 못 찾은 사람에게 2개를 주었다. 선물은 우리가 하나씩 준비해온 것을 나눠 갖는 것이지만 찾을 때만큼은 왜 이리 승부욕이 발동하는지. 이런 작은 기쁨도 삶의 소소한 즐거움일 것이다.

산장과 같은 분위기의 술집에서 술 한 잔 기울이며 하루의 마무리를 했다. 밤이 되니 조금은 추워서 피워놓은 모닥불 앞에 웅기중기 모여 못다 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술에 취하기보다는 대화에 취해갔다. 잡자리에 들면서도 끊임이 없었던 대화와 웃음. 사춘기 소녀처럼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눈물을 흘리며 웃다 잠이 들었다. 그날 대화 도중 머리를 짚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본인의 코고는 소리에 놀라 깨는 모습이 귀여웠던 이가 다시금 기억나 웃음 짓게 한다.

다음날 아침을 먹고 둘레길을 걸었다. 조금은 더운 화창한 날이라 햇살이 따갑기는 했지만 걷기에 좋은 날씨였다.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꽃들도 아직 피어있었고 푸르르진 나무들을 보며 자연의 향기를 흠뻑 맡을 수 있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한 덕에^^;; 오르막길은 나에게 고역이었지만 자연의 공기를 마시며 몸 안에 산뜻한 공기를 넣는 느낌이 좋았다. 상담원 봄MT는 자연 속 산책으로 마무리되었다.

※ 헤나
인생의 유예기간을 보내고 있는 헤나.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성장하고 단단해질 것을 희망해본다.

말복에도 도시락

상담소가 이사하면서 낡지만 정겨웠던 옛 공간과 작별하게 되었어요. 아쉬운 건, 활동가들이 빠곡히 앉아 함께 점심을 먹는 장소이자 때로는 진지한 회의를 하는 장소가 되어준 만능탁자, 좁지만 있을 건 다 있던 상담소 부엌과도 자연스럽게 작별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엌과 식탁이 있는 새 공간을 짓기까지 '극한도전! 마스터셰프 상담소는 잠시만 안녕! 식탁과 부엌이 없어도 상담소 사람들이 함께 하는 점심시간은 쭈욱 이어집니다. 활동가들이 저마다 요리솜씨를 뽐내며 싸오는 도시락은 점심시간의 새로운 즐거움이지요. 나눔터 75호에서는 말복의 인상적인 도시락과 함께 활동가들의 특급비결 한마디씩을 들어보았습니다~

SHOW ME THE 도시락!

오후 12:30.

'점심시간이다!' 하는 누군가의 한마디로 다들 밥시간임을 깨달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각자의 도시락이 펼쳐집니다.

평소 책상 안에 숨 들어가 있던 작은 서랍장이 훌륭한 식탁으로 변신하지요.

질리지 않는 밀반찬과 신선한 볶음요리가 조화를 이룬 감의 오징어채무침과 가지볶음 도시락

“오징어채무침은 오징어채를 물에 한번 씻어 촉촉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비법이지요. 그 다음 모든 양념장을 팬에 넣고 우르르 끓인 뒤, 불을 끄고 오징어채를 넣어 잘 섞어주고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완성이지요.

가지볶음은 찌지 않고 센불에 볶아내는 것이 핵심포인트입니다. 마른고추를 먼저 달궈 매운 향을 낸 후 마늘,



양파, 시장에서 구입한 싱싱한 가지를 센불에 같이 볶아내면 씹는 식감이 남아있는 가지볶음을 만들 수 있어요.“

대체 언제 만들었을까요?

주말에 딱딱!

토리의 계란장조림 도시락

“계란장조림의 간장양념은 진간장과 집간장을 반반 섞어서 사용합니다. 여기에 설탕을 줄이고 효소와 꿀로 단맛을 냅니다. 아무리 끓여도 짜지 않은 계란장조림의 비밀은 바로 이 양념장에 있지요. 다진마늘과 후추를 넣지 않으면 보기에다 깔끔한 토리표 계란장조림이 만들어지지요.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비결은 활동가들과 함께 나눠먹는다는 즐거움이겠죠?”



심심한 듯하지만 자꾸만 손가락이 가는 불매!

선민의 넉넉한 복음밥 도시락

“카레버섯볶음밥을 알려드리지요. 새송이, 표고를 얇게 썬 것을 기름과 버터 1큰술씩 넣은 팬에 살짝 볶은 후 숨이 죽으면 불을 끄고 식은밥과 섞어줍니다. 질척해질 수 있는 더운밥 대신 식은밥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포인트이지요. 기호에 따라 카레가루도 섞어준 후 불을 켜서 살짝 더 볶아주면 완성! 시원한 물김치와 김을 곁들여 먹으면 간단하면서도 좋은 도시락이 됩니다.

활동가들이 좋아하는 매운 우엉조림은 우선 우엉을 껍질 벗겨 먹기 좋게 채썬 뒤, 식초물에 30분 담갔다가 끓는물에 식초 반 숟갈을 넣고 데쳐줍니다. 냄비에 들기름과 사과잼, 조선간장 1큰술씩과 다진마늘 반 큰술, 데쳐둔 우엉을 함께 볶아주는데 이때 채썬 청양고추를 넣기에 맵싸한 맛이 나지요. 한김볶은 뒤 물 1컵과 양조간장 4큰술을 넣고 약불로 졸이다 거의 줄어들면 조청 1큰술로 마무리 후 통깨를 뿌려줍니다.“



자취하는 1인가구에 부족하기 쉬운 채소와 과일을 듬뿍 담은 유명 '야채가 있는 도시락'

“갓은 야근과 외식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동거인을 위해 싸기 시작한 도시락입니다. 준비하기 간편하고, 재료비가 적게 들며, 야채가 많은 도시락을 싸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날의 밥은 오이 1/2개와 올리브 5알, 적양배추채, 방울토마토로 만든 샐러드, 꿀을 넣어 전자렌지에 찐 단호박에 견과류를 약간 올린 것, 바질을 넣고 삶은 닭고기 약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재료는 주로 가까운 동네마트나 저렴한 시장에서 구매합니다.

이날의 메뉴는 마치 사진 찍을 일을 예비한 것처럼 훌륭한 비주얼을 자랑하지만, 이날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리스러운 메뉴였습니다. 어쩐지 다음 날부터 더 많이 바빠져서 그 후론 거의 도시락을 싸지 못했답니다.”



오후 13:30.

모두 업무로 복귀할 시간입니다.

마음이 굶한 활동가들은 서둘러 도시락을 먹고 진즉에 자리에 앉았군요.

밥한 숟갈에 반성폭력을, 밥한 숟갈에 여성인권을...

오늘도 든든히 먹고 씩씩한 반성폭력운동을 펼쳐갑시다!



1/18~9 2014년 28차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 참석
1/15 제110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석
1/15 이화여자대학교 제5회 EGEF 오픈포럼 '변화를 만드는 여성연대' 토론
1/17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14차 정기총회 참석
1/21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 이사회
1/24 한국성폭력상담소 23차 정기총회



2/5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여성·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2/7 '여성주의 반성폭력운동의 미래를 전망하다' 공개 포럼
2/12 제111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주관
2/18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여성,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2/19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정기총회
2/19 '들어라 불통령, 불어라 불바람' 박근혜정부 1년 촛불집회



2/20 부설 연구소 '올림' 개소기념포럼 '성폭력, 두려워해야 하는가?: 성폭력 두려움의 현황과 진단'
2/21 별의별상담연구소 개소식 참석
2/24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내방
2/25 성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 개선방안 토론회 참석



3/8 3.8세계여성일기념 30회 한국여성대회
3/14 서울시학생인권위원회 정기회의
3/17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학생 내방: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과 반성폭력운동 현황 소개
3/18 활동가교육: 반성폭력운동의 성과와 과제
3/19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참석
3/20 마포소방서 내방 소방안전교육
3/24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케이스포럼
3/24 군대내 성추행 및 가족행위 피해자 추모제 참석
3/25 활동가교육: 여성주의적 반성폭력운동 조직의 현황과 과제
3/27 마포구청 지도점검
3/2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정책 연구과제 간담회



4/7 활동가교육: 여성주의 실천으로 바라본 반성폭력 활동과 현실과 과제
4/8 활동가교육: 여성운동의 역사, 현황과 과제
4/10 활동가교육: 여성주의적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본 반성폭력운동의 과제
4/10 언론인권센터·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 '언론보도 2차피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종석 사건 2차 피해소송 판결의 의미' 토론회 토론



4/14 상담자원활동가 옹호
4/15 국정원 사국회의의 농성장 연대방문
4/15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 이사회
4/16 '스토קי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토론회
4/17 진로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및 토론회
4/24 연구소 올림 중장기비전 기획회의
4/2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아동·여성권익증진공모사업 선정단체워크숍: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우수사례발표
4/29 한국여성단체연합 '베이징+20주년, Post 2015, 여성운동 미래전망 만들기' 전체워크숍 참석
4/30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워크숍

5/9 한국여성학회 주최 활동가 연구자 공동 교류협력 세미나 <피해자의 자각: 여성폭력 피해자의 전형성에 관한 논의> 발제
5/10 한국여성대권도연맹 임원진 내방
5/14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전화 공동주최: '낙태죄 연속포럼 두번째 <낙태> 처벌, 왜 위험인가?'
5/16 광주트라우마센터 주최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 중 심리치유워크숍 참석
5/20 활동가교육: 여성주의 쉼터운동의 현황과 과제
5/20 광주트라우마센터 주관 오월광주 치유사진展 '기억의 회복' 단체관람
5/21 제4회 SOG로라키움 균형법과 동성애
5/29 한국여성재단 여성단체대표 간담회
5/31 재단법인 동천 5주년 기념 공익세미나 사진간담회 (공익을 생각한다: 오피니언 투어) 참여
5/31 세월호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원탁회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 참여

6/1 회원소모임: 등산
6/3 한국성폭력상담소 임시 이사회
6/3 활동가교육: 반성폭력운동을 위한 소셜미디어소통과 모금활동
6/11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인권역 워크숍
6/11 청와대 여성가족부서관실, 여성가족부 내방
6/14 회원소모임: 발리댄스
6/19 서울시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
6/24 상담자 2차적트라우마치유워크숍(한국NVC센터 초청 강사 페트리샤 케인)
6/27 '베이징+20년, post-2015 여성운동 미래전망 만들기: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와 쟁점' 토론회 참석

